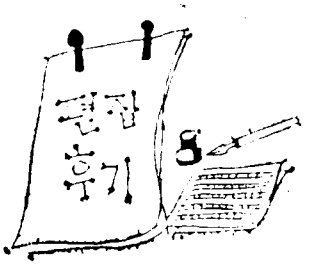

옛부터 우리나라는 農業을 으뜸으로 한 治山治水를 國家百年大計의 礎石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時代的 흐름에 따라 治山治水에 곁드려 治火까지도 政策의 主要 課題로서 삼아야 할 때가 到來한 것으로 생각한다.

現代의 모든 防災設備는 單純한 經驗만으로 安逸하게 解決되기에는 우리 周邊環境이 너무나 複合하게 發展되었다. 고로 火災豫防을 위한 보다 高度의 技術開發에 加一層의 努力을 傾注해야 한다.

防災業務를 맡고 있는 防災의 역군으로서 지난날 "불에는 물"하는 수박 겉핥기식의 防災活動을 止揚하고 國民의 生活安定에 最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本誌를 위해 寄稿해 주신 姜龍植 康宗權 黃錫永諸教授를 비롯하여 火災豫防의 知識을 널리 關係人에게 알리기 위해 精誠어린 原稿를 보내주신 여러 寄稿者에게 感謝한다. 〈華〉

火災安全點檢《年 2回刊》

(通卷 16)

登錄番號 바 520

登錄日 1973年 10月 11日

發行日 1981年 7月 1日

印刷日 1981年 6月 30日

非賣品

發行兼編人 李 大 鎔

印刷人 李 南 亨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火災保險協會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614

汝矣島 郵遞局 私書函 27號

郵便番號 150—□□

電話 (782) 8111~8125

(783) 2121~2135

本誌는 雜誌倫理委員會의 雜誌倫理要綱을 遵守한다.